

HEADLINE NEWS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규모 이용자 설문조사 (미국: 트랜턴市)

미국 뉴저지주는 州 도시철도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9월부터 대규모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州 도시철도 23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설문조사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110,500명(1일 기준)의 승객 중 약 15,000명의 승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가하는 승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며, 1년간 4번에 걸쳐 설문조사에 응하게 된다.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이와 같은 연속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年中 승객 만족도의 경향 및 변화 등을 파악하게 되며,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료를 얻게 된다.

(www.njtransit.com/ne_pressrelease.jsp?PRESS_RELEASE_ID=521)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대중교통 위주의 주거단지 「트랜짓 빌리지」 건설 (미국: 리치몬드市)

도시환경

- ②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황함량을 1/10로 줄인 저유황 경유 공급 (동경)

도시교통

- ③ 관광과 문화재 보호위해 브란덴부르크 門 승용차통행 전면금지 (베를린)
- ④ 철도서비스 개선 위해 광역 급행철도 도입 샌프란시스코
- ⑤ 노년층 보행자를 위한 대각횡단보도 설치 (미국: 오클랜드市)
- ⑥ 트라팔가 광장을 차없는 시민공간으로 (런던)
- ⑦ 상점가 활성화 위해 보행자 전용거리 실험 (일본 나하市)
- ⑧ 어린이 철도승객을 위한 안전교육행사 개최 (토론토)

사회복지

- ⑨ 수재민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특별우표 제작 (베를린)
- ⑩ 청소년에게 IT관련 일자리와 직업훈련 동시 제공 (홍콩)

행.재정

- ⑪ 市공무원이 직접 시민을 찾아가는 「이동행정서비스 제공 (베를린)
- ⑫ 都의 재생사업 위해 도채 발행 (동경)

① 대중교통 위주의 주거단지 「트랜짓 빌리지」 건설 (미국: 리치몬드市)

미국 캘리포니아州的 리치몬드(Richmond)市는 Bay Area Rapid Transit과 공동으로 대중교통이용을 위주로 하는 주거단지 「트랜짓 빌리지(transit village)」를 건설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이 주거단지는 州政府가 추진 중인 ‘교통혼잡 완화 프로그램’의 141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231채의 주택과 상업용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 「트랜짓 빌리지」 건설을 위해 앞으로 3년에 걸쳐 1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교통과 도시개발을 연계시키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www.dot.ca.gov/ctnews/)

②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황함량을 1/10로 줄인 저유황경유 공급 (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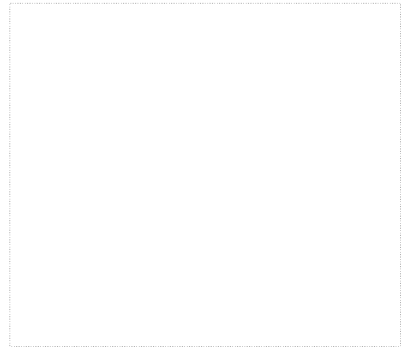
일본 東京都는 중앙정부의 계획보다 21개월이나 앞서 올 9월부터 都内の 주유소에 황함량을 현행(500ppm이하)의 1/10 수준으로 정제한 황함량 50ppm이하의 저유황 경유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都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2001년 11월부터 석유 연맹 등의 관계업체에 저유황경유 공급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1리터당 10엔 범위내에서 저유황경유 공급 정유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저유황경유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都는 2003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미세 먼지저감장치 부착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metro.tokyo.jp/INET/CHOUSA/2002/08/60C8G100.HTM)

3] 관광과 문화재 보호위해 브란덴부르크문의 승용차통행 전면금지 (베를린)

독일 베를린시는 동·서베를린을 잇는 주요 중심통로인 브란덴부르크문 (Brandenburger Tor)의 승용차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의 통행만을 허가할 방침이다. 시의 관광협회는 오래전부터 관광객의 자유로운 거리 활보와 소음이 없는 편안한 휴식공간 제



공을 위해 브란덴부르크문의 전면적인 차량통제를 시에 요구해 왔었는데, 이번에 시가 관광과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개인승용차의 통행금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독일자동차협회에서는 교통혼잡과 이에 따른 주변도로의 지속적인 정체 유발을 이유로 브란덴부르크문의 자유로운 승용차통행을 요구하고 있다.

(Berliner Morgenpost, 8. 21)

4] 철도서비스 개선 위해 광역 급행철도 도입 (샌프란시스코)

미국 산 호세(San Jose)와 샌프란시스코간의 통근자를 위한 광역급행철도 서비스가 최근 시작되었다. 'Baby Bullet'으로 불리는 이 급행철도는 캘리포니아 州政府가 추진중인 '교통혼잡완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는데, 두 도시 간의 통행시간을 단축시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대중교통 승객 수를 늘리는 동시에 두 도시의 경제활동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광역급행철도의 도입을 위해 철도역사 개량, 대피선 건설, 신호시간의 연동화 등 철도시설 개량이 먼저 이루어졌다.

(www.dot.ca.gov/ctnews/)

5 노년층 보행자를 위한 대각횡단보도 설치 (미국: 오클랜드市)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市는 노년층 보행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에 대각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노년층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市の 차이나타운(Chinatown)은 횡단시간이 오래 걸리는 노년층 보행자의 비율이 매우 높아 횡단보도 상에서 자주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키고, 심지어 최근에는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오클랜드 차이나타운 연합회, 오클랜드 상공회의소 및 市가 공동으로 보행자 횡단신호시 모든 방향의 차량이 멈추고, 보행자만이 교차로를 통과하며, 대각 방향으로도 횡단이 가능한 대각횡단보도를 시범적으로 지난 4월에 설치하게 되었다. 이 대각횡단보도는 그동안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노년층 보행자를 위한 최적의 횡단보도로 평가되었다.

(www.tsc.berkeley.edu/newsletter/aug02/scramble.html)

6 트라팔가 광장을 차없는 시민공간으로 (런던)

영국 런던市에서는 교통으로 숨막히는 트라팔가(Trafalgar) 광장을 베니스의 세인트마크 광장이나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같은 진정한 시민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1단계 조치로, 9월 1일부터 트라팔가 광장의 북쪽으로는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이 조치는 새로운 광장 조성의 신호탄으로써, 이제 시민들은 레스터 광장에서 국립미술관을 거쳐 도보로 트라팔가 광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트라팔가 광장~국립미술관~국립초상화 미술관을 잇는 거리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이후 기존의 차없는 거리인 레스터 광장 일대와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은 이번 조치로 도심의 교통체증이 다소 심해진다 하더라도, 내년의 혼잡통행료 징수 이후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의 도보 가능권이 넓어져 환영하는 분위기다.

(www.guardian.co.uk/transport)

7 상점가 활성화 위해 보행자 전용거리 실험 (일본: 나하시)

일본 나하(那覇)시는 자가용이나 노선 버스 등의 차량을 규제하고, 길을 보행자에게 개방하는 「Transit Mile」이라는 시범사업을 8월 31일, 9월 1일, 7일, 8일 등 주말 4일간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市の 국제길에서 실시했다. 이 시범사업은 국제길 상점가의 손님 감소 원인이 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길에서 차량 규제가 시작되자, 꽃을 심은 화분으로 구분된 중앙차선에서는 무료 버스가 저속도로 운행을 시작했고, 휴대폰으로 무료 버스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다. 한편 차량이 사라진 도로에서는 가족단위의 인파와 관광객들이 여유있게 쇼핑을 즐겼다.



(琉球新報, 9. 1)

8 어린이 철도승객을 위한 안전교육행사 개최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시의 광역대중교통 운영기관인 'GO Transit'은 어린이 철도승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는 먼저 기차나 철로 근처에서 놀거나 또는 철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무료로 기차를 타고 전시회장이 설치된 역으로 이동해 철도안전전시회를 관람하게 된다.

주최측은 많은 참여자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교육이 지루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행사 위주의 파티(party) 형식으로 꾸밀 계획이다.

(www.newswire.ca/releases/August2002/06/c0554.html)

9 수재민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특별우표 제작 (베를린)

독일 정부는 조만간 수재민 돕기를 위한 특별우표를 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우표 한장 가격은 56센트이나 특별우표는 1유로에 판매하게 되며, 차액인 44센트는 우표구입자의 수재민돕기 성금으로 모아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홍수의 최대 피해지인 드레스덴市 수재민들에게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당 1천~1천5백유로(한화 110~160만원)를 현금으로 즉시 지급했는데, 이렇게 수재민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지원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특별우표 판매로 모은 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수재민돕기 성금운동으로 1백만유로가 모금되었고, 정부에서도 이미 3백만유로를 재해대책 기금으로 마련했지만, 계속된 홍수로 인해 피해액은 10억유로에 달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재해대책 기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Berliner Morgenpost, 8. 23)

10 청소년에게 IT관련 일자리와 직업훈련 동시 제공 (홍콩)

최근 홍콩市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IT 관련 업무에 취업과 직업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IT Seeds」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5~24세의 청소년들은 홍콩시내 학교에서 1년간 조교로 채용되어, IT 기술을 이용한 강의 및 행정, 기타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맡게 된다. 각 훈련생들은 개별지도자에게서 관련 IT업무를 지도받고, 일주일에 한번씩 IT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현재 홍콩시내 370개 학교에서 550명의 훈련생 조교 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시노동과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취업경험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되며,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 청소년의 자기 발전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www.info.gov.hk/gia/general/200209/01/0831097.htm)

독) 市공무원이 직접 시민을 찾아가는 「이동행정서비스」 제공 (베를린)

독일 베를린市는 시민이 관공서를 찾아가던 기존의 수동적 행정서비스에서 탈피, 앞으로는 市행정공무원이 직접 시민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이동행정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市의 「이동행정서비스」는 개개인을 위한 행정/상담서비스 외에도, 백화점, 사회시설, 일반회사 등을 방문하며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市는 우선 내년 봄부터 향후 2년간 슈판다우(Spandau), 판코브(Pankow) 2개 구역에서 「이동행정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 3백만유로가 소요될 전망이며, 연방경제부에서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Berliner Morgenpost, 8. 22)

독) 都의 재생사업 위해 도채 발행 (동경)

일본 東京都는 都의 재생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동경 재생 도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都는 이 도채를 발행하여 약 200억엔을 모아 도로 및 공공 교통망 정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도채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 간:	3년 (만기 일괄 상환)
이 율:	0.12% (시중은행의 3년 정기예금 이율 0.07%)
가 격:	100엔에 대해 100엔
발 행 일:	2002년 9월 18일
상 환 일:	2005년 9월 20일
구입한도액:	한 사람당 1만엔~500만엔까지
모 집 기 간:	2002년 9월4일~9월17일 (선착순)
구입대상자:	도내 거주자 또는 근무자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2/08/20C8S100.HTM)